한화투자증권

2025년 10월 24일
산업분석

은행 (Neutral)

8월 연체율: 중소기업에서 slow down

▶ Analyst 김도하 doha.kim@hanwha.com 3772-7479

국내은행의 2025 년 8 월 말 연체율은 0.61%(+8bp YoY)로 상승했습니다. 중소기업 연체율이 2023 년 1 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. 연체잔액 증가율이 지난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.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2025 년 중 개선 추세로 전환되기는 이를 것으로 보이나, 그 시점을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
국내은행 8월 말 연체율 0.61%(+8bp YoY)로 상승

- 국내은행의 2025년 8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 이상 연체 기준)은 0.61%(+8bp YoY)로 상승 (그림 1~6)
-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.97%(+13bp YoY), 자영업자 연체율은 0.78%(+8bp YoY)로 상승.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.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도 0.15%(+10bp YoY)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
- 가계 연체율은 0.45%(+5bp YoY)로 상승 속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. 신용 등 일반대출은 0.92%(+10bp YoY), 주택대출 연체율은 0.30% (+4bp YoY)로 전월과 같은 YoY 상승폭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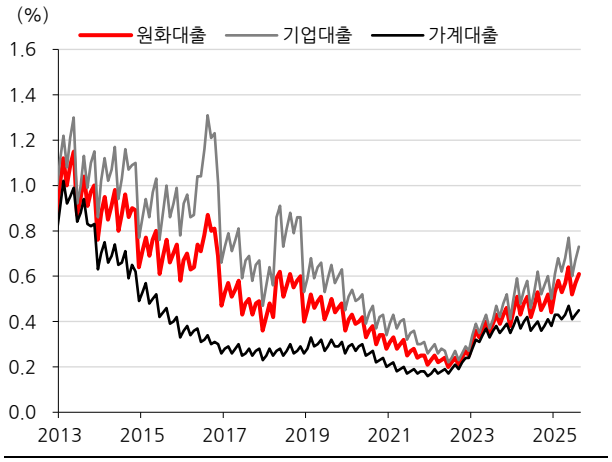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연체채권 증가율이 유의하게 둔화

-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8월 말 14.8조원(+20% YoY)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 (그림7)
- 8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.9조원(-3% YoY)으로, 40개월 만에 YoY 감소(그림9). 그러나 월별로는 해당 수준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신규 연체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. 월 중 정리(상·매각)된 연체채권은 1.8조원 이었음 (그림10)
- **기업 (추정)**: 8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+22% YoY로 추산. 법인 중기 및 자영업자의 증가율이 지난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유의하게 둔화된 것으로 판단 (그림12)
- **가계 (추정)**: 8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+16% YoY로 추산. 신용대 연체잔액 증가율이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, 주택대출 또한 20% 내외의 증가율을 지속 (그림12)

중소기업에서 slow dow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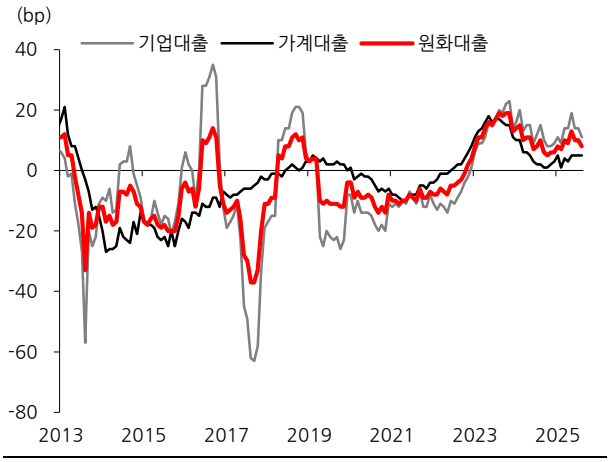
- 아직 가계 연체율은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, 은행업종의 대출 증가율이 3%대 초반까지 하락한 데 반해 전체 연체잔액의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연체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다만 가장 주요한 변수로 강조했던 중소기업(법인+자영업자) 차주의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
- 2025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 추세로 전환되기는 이를 것으로 보이나, 그 시점을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. 성장 둔화와 경기 부진이 연체율의 개선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의한 건전성 개선이 더 주효할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함

[그림1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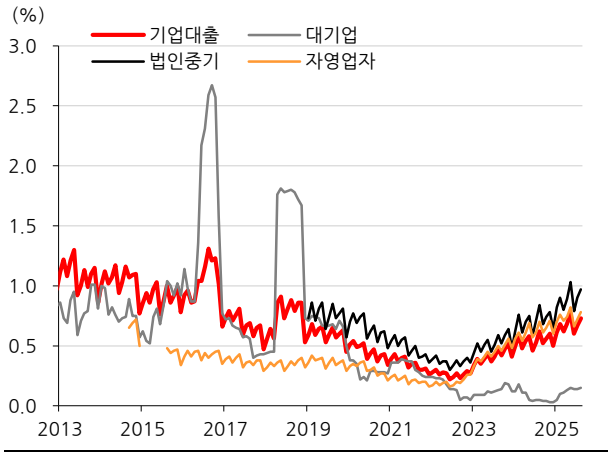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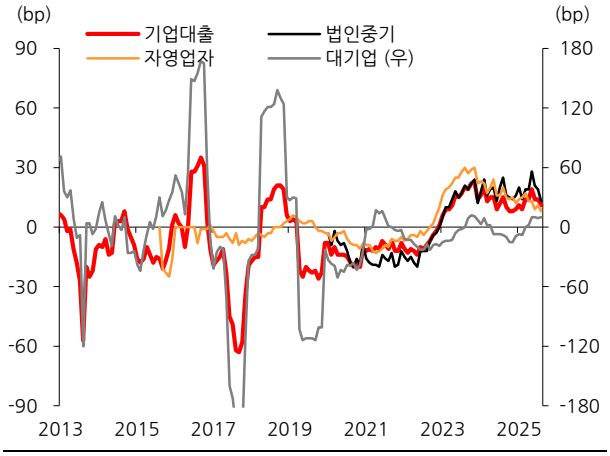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3]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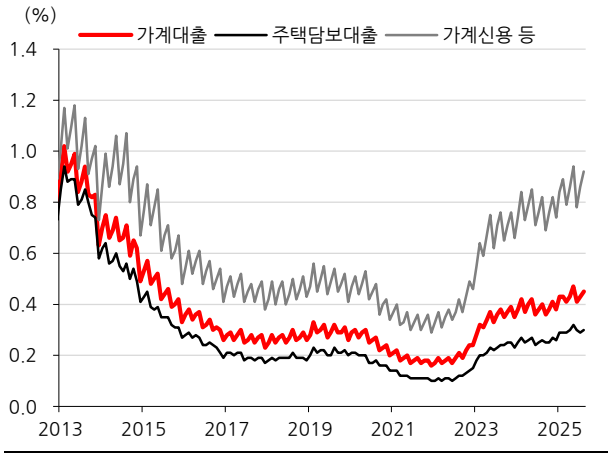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4]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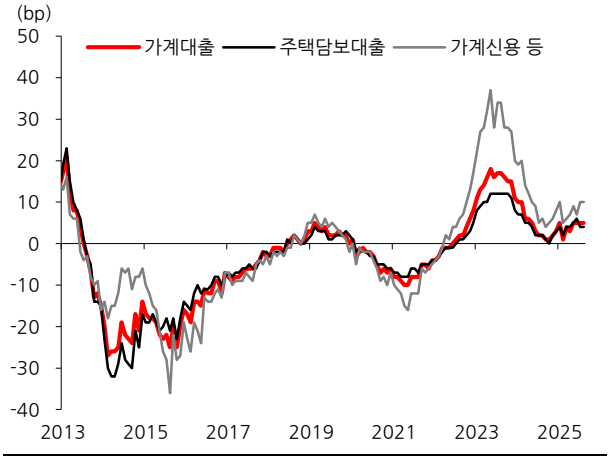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5]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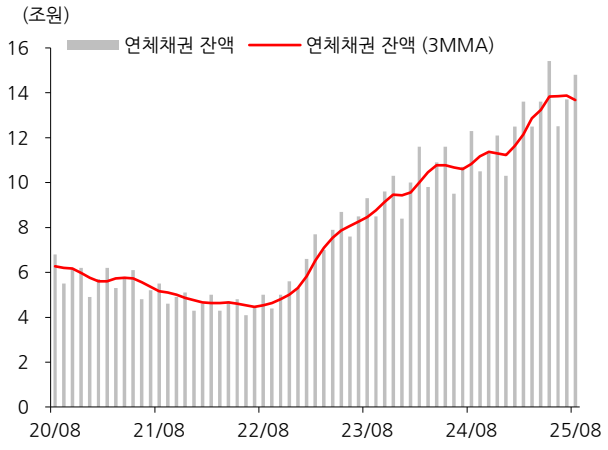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6]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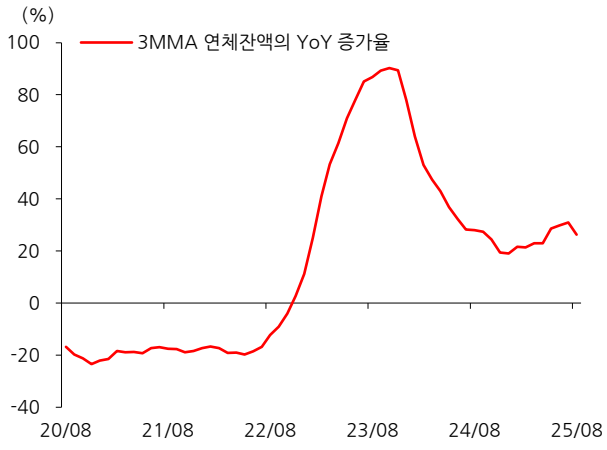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7]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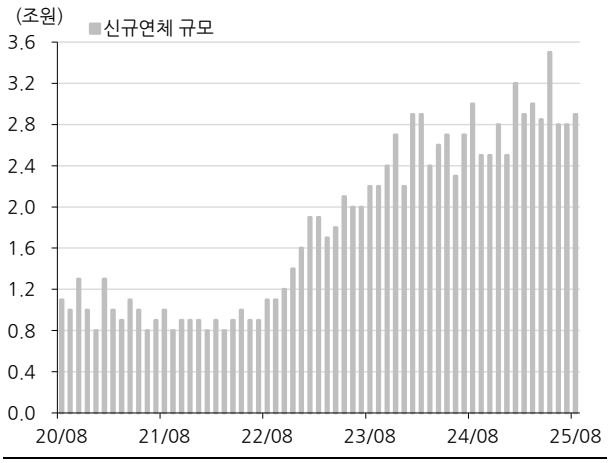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8]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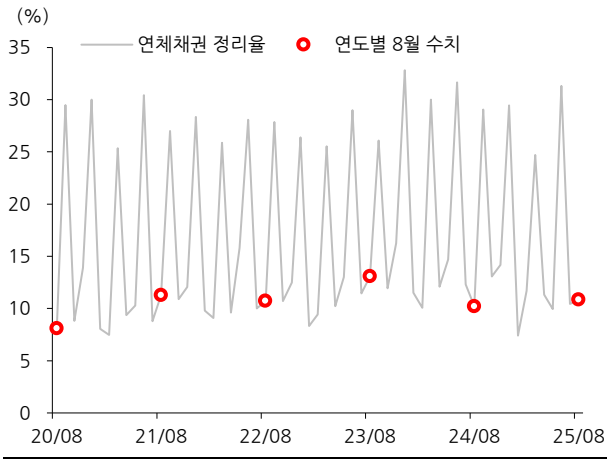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9]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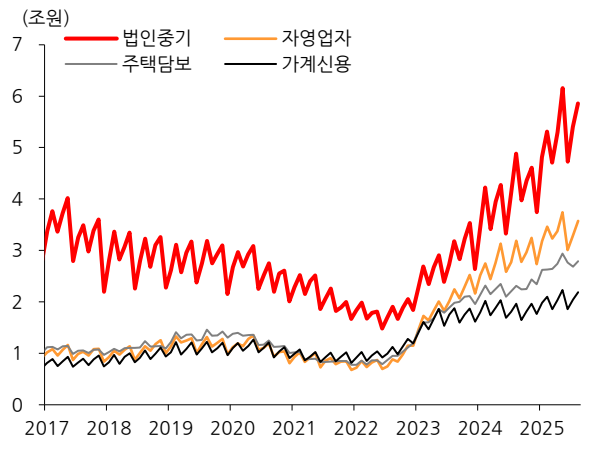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0]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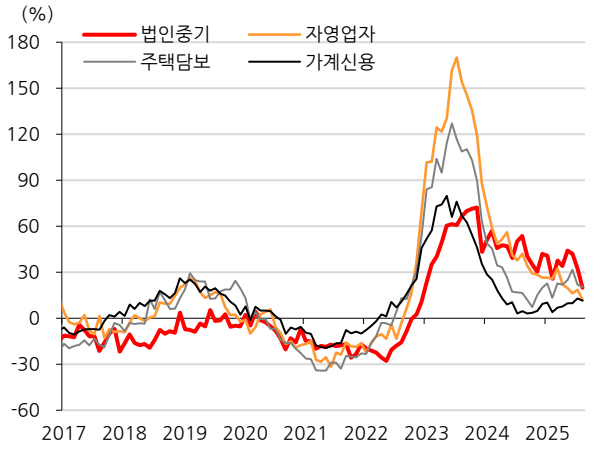
주: 당월 정리 규모/(전월 연체잔액+당월 신규연체)의 비율로 산출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1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2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Compliance Notice] (공표일: 2025 년 10 월 24 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김도하)
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종목 투자등급]

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+15%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(매수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또한 절대수익률 -15~+15%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(보유) 의견을, -15%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(매도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,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.

[산업 투자의견]

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(긍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(중립적) 의견을,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(부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.

[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] (기준일: 2025 년 9 월 30 일)

투자등급	매수	중립	매도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중	82.9%	17.1%	0.0%	100.0%